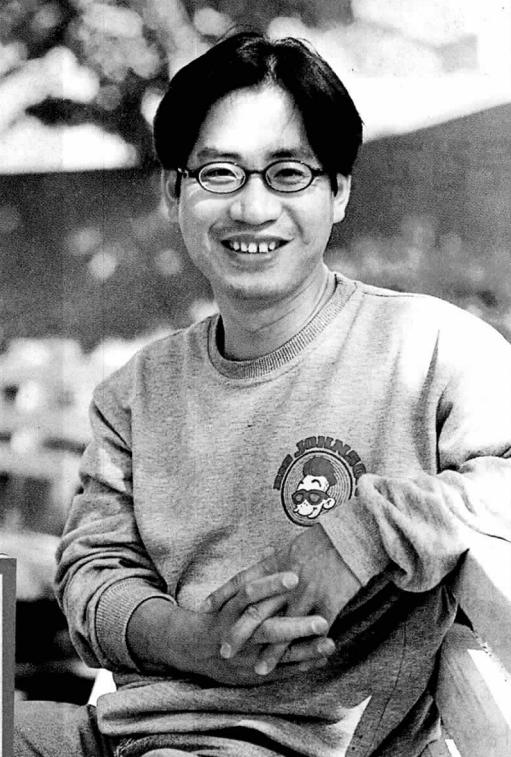


'전투적' 리얼리즘 한계 극복한 실천적 이론서

문화평론가 이동연씨가 뽑은
게오르그 루카치의 『역사소설론』



"루카치를 고루한 리얼리스트로 치부하지만 아직도 문학에 뜻을 둔 젊은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많은 작품을 꼼꼼히 읽고 비평하는 자세와 날카롭고 탁월한 분석방법은 바래지 않는 이 책의 장점이기 때문이죠."

이동연씨(35, 문화평론가)가 서가 깊숙한 곳에서 다시 찾아든 책은 『역사소설론』(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거름)이다.

"루카치가 말한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다룬, 고전적인 의미의 '역사소설'이 아닙니다. 소설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의미의 '역사소설'입니다."

그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10여년 전이다. 리얼리즘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문학예술연구소 소설비평분과에서 본격적으로 소설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책은 소설이 당대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설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깨우쳐 줬죠."

그는 이 책을 '18세기와 19세기 서구 부르주아 소설의 지형도'라고 소개한다. 당시의 많은 소설을 사례로 들어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미덕은 실천적인 이론서면서 풍부한 실제비평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전투적 리얼리즘의 한계, 즉 이념지향의 편협성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죠."

예컨대 윌터 스코트가 당대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라고 평가한 루카치의 분석은 특히 뛰어나다. 루카치는 다양한 예를 들어 윌터 스코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중지향적이면서 중도적 인물이라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루카치를 고루한 리얼리스트 쯤으로 치부하지만 아직도 문학에 뜻을 둔 젊은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많은 작품을 꼼꼼히 읽고 비평하는 자세와 날카롭고 탁월한 분석방법은 바래지 않는 이 책의 장점이기 때문이죠."

원래 영문학 전공자인 그는 한동안 루카치에 끝 빠져 있었다. 이론적 토대가 취약했던 리얼리즘 문학에 든든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리얼리즘에 대해 지금은 다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루카치'는 그에게 삶의 자양분을 공급해 줬다. 문학비평가에서 문학평론가로, 대학교수에서 시민운동가로 다채로운 삶의 길을 걸어왔지만,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만큼은 루카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 김정은 기자

열린
마당

아름다운 책을
만들고자 하는
출판편집자
출판디자이너

- 출판편집자 : 대졸이상(과학·유아교육전공자우대)
- 출판디자이너 : 대졸이상디자인전공자), 일러스트·포토샵·Quark기능한사람.
- 이력서·자기소개서·사진 각1매
- 2000년 10월 14일까지 우송(당일소인유료)
- 열린마당은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임.



110-775 서울·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 739-0180(代) 팩스: 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 739-018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